태극 우먼파워 TOKYO 2020 8강이 보인다

29일 일본 도쿄 요요기 국립체육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 핸드볼 조별리그 A조 한국과 일본의 경기에서 강경민(광주도시공사)이 슛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A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한국이 5세트 접전 끝에 강호 도미니카공화국을 이긴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핸드볼, 일본에겐 안 진다

류은희·강경민 등 맹활약 한일전 15연승
몬테네그로·앙골라전 이기면 자력 8강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한일전' 승리로 8강 불씨를 살렸다.

한국은 29일 일본 도쿄의 요요기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핸드볼 여자부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일본을 27-24로 꺾고 대회 첫 승을 신고했다. 이 승리로 한국은 최근 맞대결에서 15연승을 기록했다.

앞서 노르웨이(27-39), 네덜란드(36-43) 등 유럽 강호에 2패를 기록한 한국은 말 그대로 2연패 속 '운명의 한일전'을 치렀다.

한국은 노르웨이, 네덜란드, 일본, 몬테네그로, 앙골라와 A조에 속해 8강에 도전하고 있다.

상위 4개국이 8강에 진출하게 되는 가운데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나란히 3연승 중이다. 한국, 일본, 몬테네그로가 1승씩 수확했고 앙골라는 승리가 없다.

일본전 승리로 한숨을 돌린 한국은 몬테네그로, 앙골라전에서 이기면 자력으로 8강에 오를 수 있다.

전반 2분 심해인의 골로 경기를 시작한 한국은 전반 막판 12-9로 앞서다 연달아 실점하며 12-11로 전반을 끝냈다.

하지만 후반 첫 공격에서 '캡틴' 류은희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들어가면서 기분 좋게 후반전을 시작했다.

13-12에서 이미경과 류은희가 다시 골대를 가르면서 3점 차까지 벌였다.

일본이 골키퍼까지 교체하면서 공세를 막으려 했지만 한국은 27-24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한국은 이날 승리로 2010년 아시아선수권 22-22 무승부 이후 일본과의 15차례 맞대결을 모두 승리로 끝냈다. 류은희가 9골을 장식했고 정유라와 이미경이 4골씩 기록했다.

한국은 31일 오전 11시 몬테네그로와 A조 4차전을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여자배구, 내일 일본도 잡는다

김연경 20점…도미니카 꺾고 2승 1패
"한일전 반드시 이겨 8강행 확정할 것"

여자배구가 '한일전'에서 8강행을 확정한다.

한국 여자배구(세계랭킹 14위)가 29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A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난적' 도미니카공화국(7위)을 세트스코어 3-2(25-20 17-15 25-18 15-25 15-12)로 꺾었다.

브라질전 패배 후 케냐에 첫승을 거둔 한국은 연승을 달리며 2승 1패를 기록했다.

브라질, 일본, 도미니카공화국, 세르비아, 케냐와 A조에서 경쟁하는 한국은 상위 4위 안에 들어야 '1차 목표'인 8강행을 이룰 수 있다.

까다로운 상대 도미니카공화국을 잡은 한국은 31일 오후 7시 40분 일본과 조별리그 4차전을 치른다.

'한일전' 승자가 된다면 사실상 8강행을 확정할 수 있다.

김연경이 3차전 승리의 중심이 됐다.

2m1㎝의 장신 공격수 엘리사베트 마르티네스가 20득점을 내리꽂으면서 한국을 압박했지만 김연경이 상대의 기를 꺾었다.

박정아의 연속 서브 에이스로 1세트를 가져온 한국은 상대의 타점 높은 공격에 막혀 17-25로 2세트를 내줬다. 상대의 범실 속에 격차를 벌리며 3세트를 가져온 한국은 4세트에서는 도미니카공화국의 힘에 밀렸다.

그리고 5세트 9-9의 상황에서 김연경이 단독 블로킹을 성공시켰고 이어 서브 에이스까지 장식하면서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김연경이 20점을 올렸고, 중요한 순간 연속 서브에이스를 보여준 박정아가 16점을 만들었다. 또 케냐전에서 4개의 서브 에이스 포함 20점을 올리며 승리를 이끌었던 김희진도 16점을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안방서 성남 상대 연승 도전

전남은 안산서 '원정 무패' 잇기

후반기를 시원한 '골잔치'로 연 광주FC가 안방에서 연승에 도전한다.

광주가 8월 1일 오후 8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성남FC를 상대로 K리그1 2021 22라운드 홈경기에 나선다.

광주는 지난 21일 강원FC와 치른 후반기 첫 경기에서 화력쇼를 펼쳤다. 엄지성, 이순민, 이민기가 연달아 골을 터트리면서 3-1 승리를 거뒀다.

2017년 프로에 뛰어든 이순민이 데뷔골을 기록했고, 이민기도 5년 만에 2호골을 남겼다. 엄원상이 올림픽에 출전하면서 자리를 비웠지만 유스 출신의 엄지성이 형을 대신해 헤더로 선제골을 만들었다. 또 다른 유스 허율도 이민기의 득점에 관여해 프로 첫 득점을 기록했다.

헤이스도 펠리페가 떠난 광주에서 확실한 에이스로 자리매김했다.

헤이스는 지난 강원전서 날카로운 키패스와 정확한 킥으로 공격의 시작점이 된 것은 물론 수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해 김호영 감독의 박수를 받았다.

휴식기 동안 조직력 강화에 공을 들이면서 준비한 '원팀' 전략도 성공적이었다.

강원전 승리로 최하위에서 벗어난 광주는 성남과 격차 벌리기에 나선다.

광주와 성남은 나란히 승점 18을 기록하고 있다. 광주가 득점에 앞서면서 11위. 하지만 성남이 코로나19 여파로 광주보다 2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다.

또 뮬리치를 비롯해 김민혁, 박용지 등 위협적인 공격수와 미드필더를 보유한 성남은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국가대표 수비수 권경원까지 영입해 스쿼드를 탄탄하게 짰다.

하지만 휴식기 동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선수단이 자가격리를 거치는 등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승세의 광주가 '잔류'라는 1차 목표를 위해 컨디션 난조의 성남을 상대로 연승을 노린다.

전남드래곤즈는 안산에서 '원정무패'를 잇는다.

전남은 8월 1일 오후 8시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안산그리너스를 상대로 K리그2 2021 23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전남은 올 시즌 적지에서 6승 5무를 기록했다. 지난 시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7월 12일 안양 원정을 시작으로 원정 20경기 연속 무패 중이다.

전남은 지난 22라운드 부천 원정에서 2-1로 승리하며 2위로 다시 올라섰다.

1위 탈환을 위해 필요한 것은 득점이다.

전남은 1위 김천상무와 나란히 10승 7무 5패(승점 37)를 기록했지만 득점에서 밀려 2위다.

전남은 올 시즌 22경기를 16점으로 막으며 '짠물 수비'를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22득점에 그치면서 화력 고민을 하고 있다.

앞선 부천전에서 발로텔리가 득점 행진을 재개한 게 반갑다.

이날 발로텔리는 팀의 추가골을 장식하면서 15라운드 서울이랜드전 이후 7경기 만에 시즌 8호골에 성공했다.

전남이 승리로 원정 무패를 잇고 1위 탈환까지 이룰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체육중 레슬링 금 3 수확

대통령기 겸 소년체전서 은메달 2·동메달 2개도

광주체육중 레슬링부가 최근 강원도 양구에서 개최된 '제46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대항 레슬링대회 겸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28일 광주체육중에 따르면 남중부 그레코로만형 92kg 경기에 출전한 2학년 이재혁이 1회전부터 결승까지 화려한 기술로 상대편을 압도했다.

이재혁은 결승전에서 맞붙은 강원도 팀을 엉덩이 걸이 폴승으로 제압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자유형 110kg 경기에 출전한 3학년 백주안은 결승전에서 맞붙은 경기도 팀을 상대로 10-0 테크니컬 폴승을 하며 금메달을 땄다.

2학년 박인성은 자유형 45kg 경기에 출전해 결승전에서 만난 강원도팀을 4-0 누르기 폴승으로 제압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중부 그레코로만형 80kg 경기에 출전한 3학년 최성식과 남중부 자유형 42kg 경기에 출전한 2학년 이태양도 각각 은메달을 수확했다.

자유형 71kg 경기에 출전한 3학년 김승우, 자유형 110kg 경기에 출전한 3학년 정선재는 각각 동메달을 차지했다.

광주체육중 레슬링부 여승구 감독은 "열심히 노력해 좋은 성과를 거둔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만족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모가디슈
2관	방법: 재차의
3관	보스 베이비 2, 정글 크루즈
4관	보스 베이비 2, 정글 크루즈
5관	모가디슈
6관	모가디슈
9관	블랙 위도우
7관 씨네커플	모가디슈, 랑종 이스케이프 룸 2: 노 웨이 아웃
8관 씨네커플	방법: 재차의, 발신제한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시즌
박수를 보내다 : 독주회 II
원재연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1. 08. 21.(토)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GAC 11시 음악산책 5
조진주, 소리너머
일시 : 2021. 08. 25.(수)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2